

중국 고대 여성작가 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 분석

— 제남 이청조기념당을 중심으로 —

윤혜지*

<目次>

- | | |
|----------------------|---------------------|
| I. 서론 | IV. 기념관 전시 내러티브의 한계 |
| II. 기념관 조성 배경과 전시 구성 | V. 결론 |
| III. 기념관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 | |

<중문초록>

本論文以濟南李清照紀念堂的展示構成與空間配置為中心，分析紀念館如何透過展示敘事再現李清照的文學身份與作家形象。濟南李清照紀念堂以著名書法家的書寫將作家的詞作刻於石上進行展示，並結合作家的石像、呈現其作品世界的繪畫以及相關文物等，營造出相對豐富的展示環境。此外，紀念館還以宋代風格的建築與桂花、海棠、梨花、梅花、梧桐等作家生前喜愛的植物景觀相結合，從空間層面呈現李清照的生命經歷與情感世界。

紀念館的展示敘事主要從三個視角對李清照進行論述：一是留下卓越詞作的「一代詞人」，二是中國所象徵的理想女性形象，三是心懷對故鄉濟南深厚思念的作家。整體展示由室內展館與室外展示空間構成：室內部分主要呈現人物評價、生平發展以及相關書籍與文物；室外部分則透過詞作石刻、詩畫、亭子與園林景觀等元素，進一步延伸與表現作家的文學世界。

* 동국대학교(서울)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然而，相較於視覺性與象徵性的再現方式，該展示在系統性詮釋與傳達李清照的文學成就及其作品的文學意義方面仍顯不足。基於上述分析，本文提出：在文學家紀念館的展示設計中，有必要進一步強化文學語境與文本解讀，以建構更具深度的展示敘事。

I. 서론

문학가의 기념관¹⁾은 특정 작가와 관련된 문화적 기억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전시 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공간과 매체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관람객의 해석과 의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작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판단을 형성하는 기억 장치로 기능한다. 사회학자 마이클 슈드슨(Michael Schudson)이 지적하듯 집합 기억은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과거 재현 속에는 언제나 현재적 가치와 해석이 반영된다.²⁾ 따라서 문학가의 기념관은 특정 시대가 작가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

문학가의 기념관은 작품과 기록 같은 문자적 자료뿐 아니라 유물, 조형물, 공간 연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가의 삶과 이미지를 재현하며, 관람객이 이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1) 본고에서는 문학가를 기념하는 전시 공간의 일반적 범주를 가리킬 때는 ‘문학가의 기념관’이라 하고, 연구 대상인 제남 표돌천 공원 내의 실제 시설은 그 고유 명칭에 따라 ‘이청조기념당’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다만 문맥상 시설 일반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기념관’이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2) 사회학자 Schudson은 현재 속에서 작동하는 과거(past in the present)와 과거 재현 속에 반영된 현재(present in the past)을 대비하여, 집합 기억이 언제나 현재적 관점에서 구성·재해석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Michael Schudson, “The Past in the Present versus the Present in the Past” *Communication* 11 No. 2, (1990). 참조.

수행한다. 특히 전시 내러티브에서 선택된 작품과 표현 방식은 작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어떤 측면이 강조되고 어떤 요소가 배제되는가에 따라 관람객이 형성하는 작가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 고대 여성작가는 그 수가 적지 않지만, 이들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기념관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작가 개인을 기념하는 공간으로는 이청조(李清照), 설도(薛濤), 채문희(蔡文姬), 장옥랑(張玉娘) 등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기념관이 존재한다.³⁾ 그중에서도 이청조(1084~1155?)⁴⁾는 송대를 대표하는 여성 문인으로서 문학사적 위상이 높고 대중적 인지도 또한 커 여러 지역에 기념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⁵⁾ 본 논문은 그 가운데 산둥성 제남(濟南) 표돌천(趵突泉) 공원 내 위치한 이청조기념당(李清照紀念堂)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기념관은 생가터와 연계된 장소성, 비교적 완결된 전시 체계, 높은 관람 빈도 등으로 인해 이청조에 대한 대중적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기존 전시 내러티브 연구는 주로 역사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기념관 전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거나 기념관의 역사 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⁶⁾ 중국에서도 기념관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기능이나 문화 전승 방식을 논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사천성(四川省)

3) 이청조기념당 외 설도기념관(薛濤紀念館)은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채문희기념관(蔡文姬紀念館)은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장옥랑시문관(張玉娘詩文館)은 절강성(浙江省) 송백(松柏)에 건립되어 있다.

4) 이청조의 호(號)는 이안거사(易安居士)이며 산둥성(山東省) 제남(濟南) 장구(章丘) 출신으로, 송대(宋代) 완약파(婉約派)를 대표하는 사인(詞人)이다.

5) 이청조기념관은 산둥성(山東省) 제남(濟南)의 이청조기념당(李清照紀念堂)과 장구(章丘)의 이청조고거(李清照故居), 청주(青州)의 이청조기념사(李清照紀念祠), 그리고 절강성(浙江省) 금화(金華)의 팔영루(八詠樓) 내 총 4곳에 조성되어 있다.

6) 조은경, <한국독립운동사의 '새로운 인식'을 반영한 전시 내러티브 변화-독립기념관 상설·기획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5집, 2024. 이아름·박현숙, <동아시아 전쟁 관련 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와 역사교육적 의미>, 《역사교육연구》 제35집, 2019.

강유시(江油市)의 이백(李白) 기념관을 중심으로 중소 박물관의 사회교육 활동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⁷⁾ 또한 전시 공간의 조형적 서사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는데, 특정 건축가의 전시 공간을 사례로 조형적 내러티브를 분석하거나,⁸⁾ 정원형 전시 공간의 구성과 활용 방식을 고찰한 연구들은 전시 환경이 관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성도(成都)의 두보초당(杜甫草堂)에서 개최된 난초 전시를 사례로 정원식 전시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논한 연구는 문학가의 기념 공간이 자연 경관과 결합하여 서사를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⁹⁾

지역 기념관의 전시 개선 방향을 다룬 연구도 일부 축적되어 있다.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전시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나, 신미디어 환경에서 이백 문화의 해석과 표현 방식을 논의한 연구 등은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한 기념관의 운영 전략을 탐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문학가의 기념관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고대 남성 작가를 기리는 기념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전승과 교육 기능을 논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이백 기념관을 기반으로 한 문화 강연 기지 구축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¹⁰⁾ 문학가의 기념관이 지역 문화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역사적 인물의 업적 기념, 문화 자원의 활용, 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를 통해 특정한 작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문학가 기념관 가운데 여성작가를 대상으로 한 전시 내러티브 연

7) 瞿江·羅環, 〈淺談中小博物館如何創新進行社教工作—以四川省江油市李白紀念館為例〉, 《文物鑑定與鑑賞》 第12期, 2022.

8) 김영을, 〈다니엘 리베스킨트 전시 공간을 통해 본 조형적 내러티브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집 2호, 2012.

9) 陳濤, 〈庭園式展陳空間的打造與利用—以成都杜甫草堂首屆蘭花展為例〉, 《文化月刊》 第12期, 2024.

10) 何瓊, 〈關於依托李白紀念館興建李白文化傳講基地的探索與思考〉, 《文物鑑定與鑑賞》 第11期, 2023.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청조기념당을 사례로 한 본 연구는 여성 문학가 기념관이 어떠한 작가상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전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청조기념당의 전시 내러티브가 작가의 삶과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함께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시가 생애 서사를 통해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향토 인물로서의 작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문학적 성취와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각적·상징적 재현에 치우친 전시 방식과 해설 장치의 미비와 맞물리면서, 관람객의 문학적 이해를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

분석은 기념관의 내·외부 공간 동선을 따라 전시 주제, 전시 매체(작품 텍스트, 유물, 조형물, 조명), 해석 장치(안내문과 설명문)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¹¹⁾ 이를 바탕으로 전시가 어떠한 작가상을 구성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적 기억을 조직하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문학가 기념관 전시로서의 의미 전달 방식과 그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II. 기념관 조성 배경과 전시 구성

1. 기념관 건립 배경과 성격

제남(濟南) 표돌천(趵突泉) 공원 내 위치한 이청조기념당(李清照紀念堂)은 송대를 대표하는 여성 문인 이청조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작가의 고향으로 인식되는 지역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청조

11) 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료는 2024년 6월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사진 1〉 이청조기념당 관람도

는 제남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유년 시절과 초기 삶이 이 지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남은 작가의 기억을 환기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기념관은 표돌천 공원의 중심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다소 치우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탁영지(濯纓池), 남쪽으로는 와우천(臥牛泉)과 수옥천(漱玉泉)이 인접해 있다. 이러한 입지는 자연 경관과 결합된 공원 공간 속에

서 기념관이 하나의 독립된 박물관이라기보다 문화 경관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관람객은 별도의 전문 전시시설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산책 동선 속에서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며, 이는 기념관이 관광 공간과 문화 기념 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기념관은 1959년 청대 명신(名臣) 정보정(丁寶楨)을 기리던 원정공사(原丁公祠) 터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이후 1999년에 대규모 재건 공사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념관의 전체 면적은 약 4,000㎡(1,210평)에 달한다. 기존 사당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었다는 점은 이 공간이 역사적 기념지 위에 새롭게 구성된 문화 공간임을 보여준다.

건축물은 송대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조성되었으며, 전체 건물의 배치는 정교하고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건물 외관은 회색과 암홍색을 중심으로 한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어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 연출은 작가의 실제 생활 환경을 재현하기보다는 후대가 상상한 고전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념관은 실내 전시 공간뿐 아니라 정원, 연못, 회랑 등 외부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된 관람 환경을 형성한다. 관람객은 자연 경관과 전통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들을 이동하며 전체 공간을 체

험하게 되며, 이러한 공간 구성은 기념관의 전시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2. 공간 구성과 관람 동선

기념관의 전시는 ‘이청조기념당(李清照紀念堂)’이라는 현관이 걸린 입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공원 내부의 건축 배치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동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바이두(百度) 지도에 표시된 건축물의 배열을 기준으로 보면 관람 경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되며, 먼저 시사비랑(詩詞碑廊)을 지나 첩취헌(疊翠軒)에 이르고, 이어 제1전시관인 수옥당(漱玉堂)과 계정(溪亭)



〈사진 2〉 이청조기념당 배치도(百度地圖)

으로 연결된다. 수옥당 뒤편에서는 제2전시관과 제3전시관인 정치당(靜治堂)으로 이어지는 내부 동선이 형성되며, 이후 좌측으로 이동하면 유죽당(有竹堂), 이안구거(易安舊居), 담월정(淡月亭) 등 실외 건축물로 관람이 확장된다.

전체 공간은 네 개의 내부 전시관을 중심으로 회랑(回廊), 가산(假山), 정자(亭子) 등의 외부 건축 요소가 결합된 사각형 구조를 이루며, 실내 전시와 야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단일 건물 내부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람자가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전통 원림형(園林型) 기념관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회랑을 따라 이동하며 정자와 연못, 가산 등을 순차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구성은 관람 경험에 산책적 성격을 부여하며, 문인의 정취를 체험하도록 하는 환경적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각 전시 공간은 독립된 건물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동선 안에 배치되어 있어, 관람자는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는 다음 전시 공간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는 관람 순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동시에, 전시 내용이 공간적 이동과 결합되어 단계적으로 제시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수옥당과 정치당을 중심으로 한 내부 전시관 구역은 기념관의 핵심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후 이어지는 유죽당과 이안구거, 담월정 등은 보다 생활적이고 정서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청조기념당은 실내 전시관과 실외 정원 공간을 통합한 복합적 구조를 통해 관람 동선을 구성하고 있으며, 건축적 배치 자체가 전시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Ⅲ. 기념관 전시 내러티브의 특징

1. 생애 서사를 통한 이상적 여성상 제시

이청조기념당의 전시는 작가의 문학 세계 자체보다는 개인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전통적 미덕을 갖춘 이상적 여성의 이미지와 결합된 서사 구조를 보인다. 전시 내용은 출생과 성장, 혼인과 부부 생활, 전란으로 인한 이주, 말년의 고독 등 삶의 주요 국면을 중심으로 제시되며, 관람자는 공간 이동을 통해 작가의 일대기를 따라가도록 유도된다. 이러한 구성은 이청조를 한 명의 문학가라기보다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간 개인이자 도덕적 모범이 되는 여성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특히 제1전시관 수옥당을 지나 제2·3전시관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밀랍상을 활용하여 이청조의 생애를 네 단계로 재현하고 있다. ‘부모교훈(父母教誨)’ 장면은 명문가 출신으로서의 성장 배경을 강조하며 부친 이격비(李格非)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학문적 환경을 보여준다. ‘시단탄수(詩

壇綻秀)’는 젊은 시절의 명성과 재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문학적 성취 자체보다는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지동적합(志同適合)’은 남편 조명성(趙明誠, 1081~1129)¹²⁾과의 결혼생활을 재현하여 학문과 취미를 공유한 이상적인 부부상을 강조한다. 마지막 ‘유우강남(流寓江南)’은 전란 이후 남도로 피난하여 유랑하던 후반부 삶을 표현하며, 상실과 고독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한 모습에 초점을 둔다.



〈사진 3〉 부모교회(父母教誨)



〈사진 4〉 시단탄수(詩壇綻秀)



〈사진 5〉 지동적합(志同適合)



〈사진 6〉 유우강남(流寓江南)

12) 조명성은 자가 덕보(德甫)이며, 산둥성(山東省) 밀주(密州, 현재의 산둥성 제성(諸城)) 출신이다. 관료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송 휘종(徽宗) 송녕(崇寧) 연간의 재상 조정지(趙挺之)의 셋째 아들이다. 21세에 태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이청조와 결혼하였으며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선화(宣和) 연간에 조명성은 내주(萊州)와 치주(淄州)의 지주로 임명되었으며 건염(建炎) 원년(1127년)에는 강녕부(江寧府)의 지주로 임명되었다. 건염 3년(1129년) 호주(湖州)의 지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건강(建康, 현재의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에서 병사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문학 활동의 전개 과정보다 가족과 배우자, 시대적 사건과 같은 관계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가의 삶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특히 결혼생활과 말년을 다루는 장면에서는 부부애와 절개, 인내가 강조되며, 이 청조는 독립적 창작 주체라기보다 전통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간주된 여성상에 부합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제3전시관 정치당(靜治堂)¹³의 명칭 역시 이러한 서사를 강화한다. 정치당은 남편 조명성이 내주(萊州)에서 지주(知州)로 있을 때 머무르던 거처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전시 공간 자체가 부부의 생활과 학문 활동을 상징한다. 내부 기둥에는 1990년 서예가 계공(啓功)의 서체로 쓴 영련(楹聯)이 걸려있는데, 그중 좌련(左聯)¹⁴은 전란 이후 남겨진 문헌(《금석록(金石錄)》과 《철종황제실록(哲宗皇帝實錄)》)¹⁵을 지켜낸 미망인의 모습을 강조하여, 문학가라기보다 학문적 유산을 계승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각한다.

실내 전시뿐 아니라 정자와 연못 등 외부 공간 역시 말년의 은거와 고독을 상징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데, 관람자가 정서적 분위기를 통해 인물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또한 송대 건축양식을 모방한 단아한 공간 연출은 절제된 품위와 내면적 고요함을 강조하여 전통적 여성 미덕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결과적으로 이청조기념당의 전시는 문학작품이나 사상적 특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삶의 사건과 관계, 정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이야기와 도덕적 여성상을 결합하여 작가를 재현한다. 이러한 서사는 관람자가 이청조를 뛰어난 문학가로 기억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한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틀을 형성한다.

13) ‘정치(靜治)’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스린다’ 더 나아가서는 ‘무위이치(無爲而治)’ 즉 아무런 인위적 행동을 하지 않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14) <사진 11> 정치당(靜治堂) 우측에 제시된 좌우련의 내용 참고.

15) 이 두 문헌은 이청조가 남편 조명성을 도와 함께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향토 인물로서의 재현

이청조기념당의 전시 내러티브에서 또 하나의 핵심축은 작가를 제남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즉 향토 인물로 재현하는 것이다. 기념관이 위치한 공간적 맥락과 전시 구성은 그녀를 개인이나 문학가라기보다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적 기억과 결합된 존재로 제시한다.

기념관은 제남의 대표 명승지인 표돌천 공원 내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탁영지·와우천·수옥천 등 유명한 샘과 정원 공간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기념관이 위치한 것은 이청조를 ‘천성(泉城)’ 제남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사진 7〉 이안구거(易安舊居) 〈사진 8〉 이청조상(李清照像) 〈사진 9〉 담월정(淡月亭)

전시 공간의 명칭 또한 향토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옥당(漱玉堂), 담월정(淡月亭), 유죽당(有竹堂), 이안구거(易安舊居) 등은 전통 원림(園林) 건축의 정취를 강조하며, 관람자가 지역 문화 공간을 체험하도록 만든다. 특히 ‘이안구거’는 작가의 호(號)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생활 공간을 재현한 듯한 친근감을 제공한다.

제1전시관 수옥당의 맞은편에는 계정(溪亭)이 위치해 있는데, 이 역시 향토 인물로서의 재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계정의 현판은 1980

년 장유송(蔣維崧)이 쓴 것으로, 명칭은 이청조의 사(詞) 「여몽령(如夢令)」 첫 구절 “늘 기억나네, 시냇가 정자에서 날이 저물 무렵이(常記溪亭日暮)”에서 가져왔다. ‘계정’은 본래 시냇가에 세운 정자를 의미하는데, 작품 속 공간을 실제 건축물로 구현함으로써 작가의 기억을 제남의 경관 속에 정착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계정의 양쪽 기둥에는 아래와 같이 짧은 영련이 걸려있는데, 이는 이청조의 칠언절구(七言絕句) 「춘잔(春殘)」에서 발췌한 것으로 1998년 서예가 위계후(魏啓后)의 서체로 새겨져 있다.

(右)梁燕語多終日在,
들보 위의 제비들만 하루 종일 지저귀고,

(左)薔薇風細一簾香。
장미 향기 잔바람에 주름 가득 풍기는구나.



〈사진 10〉 계정(溪亭)

이 시구는 늦봄의 화사한 정경을 묘사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향수를 표현하기보다는 평온한 일상의 분위기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킨다. 실제로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병중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만,¹⁶⁾ 영련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뒷부분만을 선택하였다. 이는 화사한 자연 풍경 속에 스며 있는 애수를 강조함으로써,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못했던 말년의 이청조를 기리는 상징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여몽령」의 시냇가 정자와 「춘잔」의 늦봄 풍경은 모두 제남에서의 기억과 연결되는 이미지로, 계정이라는 공간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장

16) 영련에서 사용하지 않은 칠언절구의 앞 두 구절은 “봄 끝나는 마당에 무슨 일로 애써 고향 생각하는가? 병중에 머리 빗노라니 한만 깊어지는데(春殘何事苦思鄉, 病裡梳頭恨發長。)”이다. 陳祖美讚, 《李清照詩詞文選評》, 上海古籍出版社, 2002, 91쪽.

소라기보다 고향에 대한 정서를 체험하는 장소로 연출되어 있다. 즉, 문학 작품이 창작물로서 제시되기보다 지역적 기억을 환기하는 장식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당에 새겨진 영련 역시 제남의 자연과 문화적 기운 속에서 뛰어난 인물이 탄생했음을 강조하며, 전란 이후의 삶과 남겨진 문헌을 언급함으로써 지역적 기억과 역사적 서사를 결합한다. 이는 이청조를 특정 작품의 창작자라기보다 제남이라는 공간이 낳은 문화적 인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사진 11〉 정치당(靜治堂)

(右)濟南泉水，洛下園林，間氣英華
鍾韻語。

제남의 샘물, 낙양의 원림, 그곳에 빼어난 기품과 뛰어난 재능이 운어 속으로 모여들었네.

(左)故國前塵，歸來夢影，偏安文獻
讓遺馨。

고국은 이미 옛일, 돌아감 또한 꿈속 그림자, 치우친 땅에서 구차한 안은 좇으며 남은 문헌은 미망인에게 맡겼네.

또한 기념관이 단일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정원과 회랑, 정자 등을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관람자는 전시관 내부뿐 아니라 공원 전체를 이동하며 인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성은 작가를 작품이나 사상과 연결하기보다 지역 경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청조기념당은 작가를 문학사적 창작 주체라기보다 제남의 역사·자연·문화 전통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재현하며, 기념관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 기념 공간의 성격을 보인다.

IV. 기념관 전시 내러티브의 한계

1. 문학적 성취 전달의 한계

이청조기념당의 전시는 작가의 생애와 인간적 면모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지역의 문화적 인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정작 문학가로서의 성취와 작품세계를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전시 공간 전반에서 관람객이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작품 자체보다 생애 사건과 일화, 생활 재현의 장면들이다. 밀랍상과 생활 공간을 재구성한 장면, 전란과 유랑을 묘사하는 연출 등은 인물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문학적 창작의 맥락과 작품 분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시사(詩詞)를 소개하는 공간인 시사회랑(詩詞回廊)에서는 작품이 석각 형식의 서예 및 시화(詩畫)로 제시되어 시각적 장식 효과는 크지만,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문학적 특징에 대한 해설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기념관은 이 공간에 이청조의 사 40여 수 중 총 27수의 사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¹⁷⁾ 다수의 작품을 유명 서예가의 필체로 제작된 석각 형태로

17) 시사비랑의 동쪽으로는 서예가 계공(啓功, 1912~2005), 구양중석(歐陽中石, 1928~2020), 위계후(魏啓后, 1920~2009) 등이 쓴 이청조의 시사(詩詞)작품이 석각되어 있고, 서북쪽으로는 이청조의 시를 그림과 함께 석각한 시화(詩畫)가 전시되어 있다. 동쪽 회랑에 석각된 24수의 사작품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怨王孫(湖上風來波浩渺, 一剪梅(紅藕香殘玉簫秋), 蝶戀花(暖雨晴風初破凍), 行香子(草際鳴蛩), 瑞鷓鴣(風韻雍容未甚都), 浣溪沙(小院開窗春色深), 菩薩蠻(風柔日薄春猶早), 如夢令(昨夜雨疏風驟), 念奴嬌(蕭條庭院), 殢人嬌(玉瘦香濃), 孤雁兒(藤床紙帳朝眠起), 醉花陰(薄霧濃雲愁永晝), 小重山(春到長門草青青), 醜奴兒(晚來一陣風兼雨), 添字醜奴兒(窗前誰種芭蕉樹), 蝶戀花(永夜慳慳歡意少), 長壽樂(微寒應候), 鷓鴣天(寒日蕭蕭上瑣窗), 漁家傲(雪里已知春信至), 訴衷情(夜來沉醉卸妝遲), 浣溪沙(淡蕩春光寒食天), 慶清朝(禁幄低張), 滿庭芳(小閣藏春), 青玉案(一年春事都來幾). 작품 사이에는 연꽃과 거문고, 화초와 서책 등의 석조화(石雕畫) 4개를 조화시켜 배치하고 있고, 이어 서쪽 회랑에는 3수의 사(声声慢(尋尋覓覓), 如夢令(常記溪亭日暮), 念奴嬌(蕭條庭院))와 그림이

제시함으로써 시각 예술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 12〉 蝶戀花



〈사진 13〉 漁家傲와 訴衷情



〈사진 14〉 석조화¹⁸⁾와 석조누창¹⁹⁾

그러나 이러한 전시는 관람객과의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계를 드러낸다. 일부 석각 작품은 위치나 조명 등의 문제로 잘 보이지 않으며, 흘림체로 쓰인 글자가 많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사전적 이해나 충분한 해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람객은 시구를 ‘읽기’보다는 공간적 분위기 속에서 ‘보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문학 텍스트가 감상의 대상이라기보다 조형 요소로 기능하게 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시사회랑의 전시는 풍부한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소통보다는 비주얼 중심의 전시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함께 석각되어 있다.

- 18) 이청조기념당의 석조화는 거문고(琴), 바둑판(棋), 서책(書), 그림(畵)이 매화(梅), 난초(蘭), 대나무(竹), 국화(菊)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꾀갯함(傲), 그윽함(幽), 단단함(堅), 담백함(淡) 등을 상징한다. 周禹辰, 〈論中國庭園中的雕刻文化 — 以趙突泉公園為例〉, 《美術教育研究》, 2020, 86쪽.
- 19) 석조누창은 원림의 장식 작용과 통풍 기능을 하는데 이청조기념당에서 사용한 석조누창은 크게 4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감과 국화의 조합으로 감(柿)은 세상(世)과 해음(諧音)으로 ‘세상 밖의 은사(世外隱士)’를 상징한다. 둘째는 대나무와 흰화(萱花)의 조합으로 대나무는 이청조의 소탈한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흰화는 걱정을 잊게 해주는 풀로 이청조의 ‘인생을 통달한 인간적 매력’을 상징한다. 셋째는 난초(蘭)와 산석(山石)의 조합으로 ‘고독하게 홀로 즐길’을 상징하고, 넷째는 매화와 소나무의 조합으로 이청조의 ‘고결한 의지’를 상징한다. 周禹辰, 〈論中國庭園中的雕刻文化 — 以趙突泉公園為例〉, 《美術教育研究》, 2020, 86쪽.

또한 건물의 현판과 내부에 전시된 대련, 또 외부 기둥에 새겨진 영련 역시 텍스트를 통한 문학적 이해보다는 인물에 대한 찬양과 상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영련은 전통적인 기념 공간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작가의 덕성과 명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지만, 개별 작품의 의미나 문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함축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관람객에게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

이청조기념당(李清照紀念堂) 현판과 입구 목각: 일대의 사인(一代詞人), 오랫동안 전송되네(傳頌千秋).²⁰⁾

수옥당(漱玉堂) 내부 목각 대련: 사인으로는 3명의 이씨를 칭할 수 있고(詞人稱三李), 송대의 여인으로는 두 명이 있네(宋代有二姬).²¹⁾

첩취헌(疊翠軒) 좌련(左聯): 독보적인 성취 천 년 동안 이어지네(獨步千秋), 거사 이안의 이름(居士易安).



〈사진 15〉 이청조기념당 현판



〈사진 16〉 목각 대련



〈사진 17〉 첩취헌 영련

예킨대 동쪽 회랑 중앙의 첩취헌(疊翠軒)은 ‘깊은 녹음’을 뜻하는 명칭과 함께, 실제로 이청조가 즐겨 노래했던 파초와 해당화가 식재되어 있어, 그녀의 사 「첨자추노아(添字醜奴兒)」²²⁾에 나타난 파초와 빛소리의 이미지

20) 중국 근대 문인 곽말약(郭沫若)의 시구로 현판 우측에는 ‘1959년 여름’이라고 쓰여 있고 좌측에 곽말약이라는 이름과 낙관이 찍혀 있다.

21) 3명의 사인(詞人)은 이백(李白), 이옥(李煜), 이청조(李清照)를 지칭하고, 2명의 여인(二姬)은 이청조와 주숙진(朱淑真) 또는 위부인(魏夫人)을 지칭한다.

와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이 현관은 언어학자 장유송(蔣維崧)이 쓴 것이고, 양쪽 기둥의 영련은 언어학자 계선립(李羨林)이 짓고 서예가 진경교(陳梗橋)가 쓴 것으로, 명망 있는 학자와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 상징성과 권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과의 구체적 연관 속에서 해석되기보다, 공간의 품격을 드러내는 장식적 기호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다. 만약 현관의 ‘첩취(疊翠)’라는 명칭이나 영련의 문구가 ‘첨자추노아」사(詞)의 정서 또는 이미지와 연계되어 설명되었다면, 관람객은 시어와 공간 경험을 결합하여 보다 심층적인 문학적 감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관과 영련이 문학 텍스트와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해석되지 못할 때, 기념관의 텍스트는 감상과 이해의 매개라기보다 공간의 권위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식적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이청조기념당의 전시가 전반적으로 문학적 소통보다는 상징적 재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계정(溪亭)에 게시된 사(詞) 구절, 그리고 수옥당 내부에 전시된 곽말약(郭沫若)의 제시(題詩) 역시 대부분 서예 작품 형식으로 제시되어 시각적 장식 효과를 강조할 뿐,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다. 특히 흘림체로 쓰인 글자는 가독성이 낮아 일반 관람객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을 이해의 대상으로 제시하기보다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첨자추노아(添字醜奴兒)」는 작가가 남도(南渡)한 뒤 지은 작품으로 “창가에 누가 파초를 심었는가? 푸르름이 정원에 가득하네. 푸르름이 정원에 가득하니, 피지고 말린 잎 모두 멋스럽네. 베개 밑에서 아픈 마음으로 밤늦도록 빗소리 듣는데, 빗소리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 후두둑 후두둑, 익숙지 않은 소리가 이 북쪽 사람 가슴에 파고들어 일어나 듣게 하네(窗前誰種芭蕉樹, 陰滿中庭。陰滿中庭, 葉葉心, 舒卷有餘清。傷心枕上三更雨, 點滴霖霖。點滴霖霖, 愁損北人, 不慣起來聽。)”라고 하였다. 陳祖美讚, 《李清照詩詞文選評》, 上海古籍出版社, 2002, 134쪽.

〈題濟南李清照故居〉

제남 이청조고거에서 쓰다²³⁾
 一代詞人有舊居,
 일대의 사인 옛집에,
 半生漂泊憾何如.
 반평생 떠돈 심정 어떠했을까?
 冷清今日成轟烈,
 쓸쓸했던 이곳 오늘 요란해지니,
 傳誦千秋是著書.
 수천 년 전해지는 저작 때문이네.



〈사진 18〉 수옥당(漱玉堂) 입구

이처럼 이청조기념당에서 텍스트는 문학작품 자체의 미학적 가치나 언어적 특징을 전달하기보다, 인물의 도덕성·학문성·역사적 의미를 강화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란 이후의 고난과 상실을 강조하는 서사 또한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비애의 정서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실제 작품 텍스트와의 직접적인 대응 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는 문학가 이청조를 “읽히는 작가”라기보다 “보여지는 인물”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중 전시 공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학 기념관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해설 부족과 관람 경험의 단절

이청조기념당의 전시는 다양한 공간 연출과 시각적 장치를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전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작품과 유물, 서예 작품 등이 다수 제시되어 있

23) 사진에 보이는 수옥당의 옥색 이청조 석상 뒤쪽으로 1595년 9월 괘말약이 쓴 시가 나무판에 금색으로 전각되어 있다.

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는 텍스트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간략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성은 관람객이 전시 내용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인상에 의존하여 관람하게 만들며, 전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서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공간을 통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이청조기념당 입구 좌측에는 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약 6분 분량의 오디오 QR코드가 제공되고 있으나, 내용이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전시 전반의 의미나 각 공간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람객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 팸플릿이나 인쇄물 형태의 해설 자료도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전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관람 중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즉, 해설 장치가 부분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람 과정 전반을 안내하거나 개별 전시 요소를 해석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사 작품이나 영련, 서예 석각 전시물의 경우 가독성이 낮은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해설이 부재할 때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수옥당 실내 전시 공간의 한쪽에는 죽간(竹簡) 형태의 패널에 이청조의 간략한 약력과 함께 이청조기념당 외 산동성 제남의 우신사(藕神祠), 장구(章丘)의 청조원(淸照園), 청주(靑州)의 이청조기념사(李清照記念祠), 그리고 절강성(浙江省) 금화(金華)의 이청조기념당(李清照記念堂)과 항주(杭州)의 청조정(淸照亭) 등 관련 기념지가 소개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송대 왕작(王焯)과 주욱(朱彧), 원대 양유정(楊維禎), 명대 양신(楊愼)과 강지회(江之淮), 청대 진정작(陳廷焯), 현대의 호적(胡適)과 정진탁(鄭振鐸), 허소천(許嘯天) 등에 이르기까지 이청조 작품에 대한 평론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사진 19〉 이청조의 약력



〈사진 20〉 이청조와 작품에 대한 평가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석상 뒤편 배경을 이루는 장식적 요소처럼 비교적 작은 글씨로 배치되어 있어, 관람객이 의도적으로 다가가 읽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문학사적 의의, 수용사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드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람에서는 시각적 장식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문학 텍스트와 관련 해설의 의미 전달의 매개가 아니라 장식적 요소로 제시될 경우, 관람객은 텍스트를 이해하기보다 이미지로 받아들여게 되며, 전시는 지식 전달보다는 분위기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전시 동선 역시 생애의 주요 사건을 따라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간을 연결하는 해설이나 서사적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관람 경험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관람객은 개별 전시 요소들을 독립된 장면으로 인식하기 쉬우며,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생애 서사와 문학적 변모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전시는 풍부한 정보와 시각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내러티브 장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설의 결핍은 전시가 의도한 역사적·문학적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하며, 관람 경험을 단편적인 감상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문학가의 기념관이 단순한 관광 공간을 넘어 교육적·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물과 관람객 사이를 매개하는 해설과 해석 장

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 예술장식품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텍스트를 실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매개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요 작품에 대한 확대 패널을 설치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원문과 번역, 간략한 해설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은 문학작품의 의미 전달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디지털 낭독기나 오디오 재생 장치를 활용하여 작품을 청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예 형식 전시에서 발생하는 읽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멀티미디어 및 인터랙티브 전시 요소를 도입하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정서, 생애 서사와의 연관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한다면, 전시의 내러티브 기능 역시 강화될 수 있다.²⁴⁾ 이와 같은 개선은 문학가의 기념관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작품 수용과 문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V. 결론

제남의 이청조기념당은 송대 양식의 건축과 조경, 석상과 회화, 서예 작품, 식물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작가의 생애와 인물상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계화·해당·이화·매화·오동 등 작품에 등장하는 식물을 활용한 조경은 이청조가 추구한 자연미와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공간 전체를 하나의 문화 경관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

24) 성도(成都) 설도기념관(薛濤紀念館)을 비교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 기념관은 2023년 8월 리모델링을 거쳐 패널 전시, 시청각 장비, 인터랙티브 요소 등 현대적 전시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주요 작품은 확대 패널과 간략한 해설을 통해 제시되며, 영상·음향 장치를 활용한 감상과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가 병행된다. 이러한 구성은 문학작품의 이해를 시각적 전시에 한정하지 않고 체험적 감상으로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러한 전시는 관람객이 작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청조기념당의 전시 내러티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다. 첫째, 완약사(婉約詞)의 대표 작가로서 문학사적 위상을 지닌 ‘일대의 사인’이라는 평가, 둘째, 뛰어난 재능과 고결한 품성을 갖춘 이상적 여성이라는 인물상, 셋째, 제남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향토 인물로서의 정체성이다. 내부 전시관에서는 생애 단계에 따른 서사를 중심으로 인물의 삶과 행적을 재현하고, 외부 공간에서는 시사 작품 석각과 정자·연못·화초 등을 배치하여 문학적 이미지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작가의 생애와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한 반면, 문학작품이 지닌 핵심적 의미와 미학적 성취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27수의 사 작품이 서예가의 글씨로 석각되어 시각예술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정서, 언어적 특징이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가독성이 낮은 서체와 제한적인 해설, 작품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은 문학 텍스트를 ‘읽히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장식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설 체계의 미비 역시 관람 경험을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된다. 입구에서 제공된 오디오 QR코드 안내는 개괄적 설명에 머물러 전시 전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별도의 안내 팸플릿이나 인쇄 자료도 제공되지 않아 관람객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참고하기 어렵다. 그 결과 관람객은 개별 전시 요소를 단편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기 쉬우며, 이들이 하나의 생애 서사와 문학적 변모 과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실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시 방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대표 작품에 대한 확대 패널과 원문·번역·해설을 병기한 ‘읽기 가능한 전시’를 강화하고, 디지털 낭독

장치 등을 통해 청각적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면 텍스트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와 인터랙티브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정서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한다면, 전시의 내러티브 기능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청조는 완약사의 발전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독자적 문체인 ‘이안체(易安體)’를 확립한 중국 문학사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전시는 그녀를 주로 지역의 위대한 여성 인물로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학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청조기념당은 단순한 지역 인물의 기념 공간을 넘어, 그녀가 왜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작품 중심의 전시와 해설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학가 기념관의 핵심 역할은 인물의 삶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이청조기념당이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전시를 보완한다면, 지역 문화 자산을 넘어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위상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민,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의 전시 분석과 개선 방향>, 《江原史學》 제39집, 2022.
- 김영을, <다니엘 리베스킨트 전시공간을 통해 본 조형적 내러티브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집 2호, 2012.
- 이아름·박현숙, <동아시아 전쟁 관련 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와 역사교육적 의미>, 《역사교육연구》 제35집, 2019.
- 이지운, 《이청조사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7.

- 조은경, 〈한국독립운동사의 ‘새로운 인식’을 반영한 전시 내러티브 변화 - 독립기념관 상설·기획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5집, 2024.
- 布鳳琴·陳國慶·任曉雪·趙連海, 〈濟南趵突泉公園李清照紀念堂植物景觀探析〉, 《現代園藝》, 2015.
- 陳祖美讚, 《李清照詩詞文選評》, 上海古籍出版社, 2002.
- 陳壽, 〈庭園式展陳空間的打造與利用 - 以成都杜甫草堂首屆蘭花展為例〉, 《文化月刊》 第12期, 2024.
- 何瓊, 〈關於依托李白紀念館興建李白文化傳講基地的探索與思考〉, 《文物鑑定與鑑賞》 第11期, 2023.
- 瞿江·羅環, 〈淺談中小博物館如何創新進行社教工作 - 以四川省江油市李白紀念館為例〉, 《文物鑑定與鑑賞》 第12期, 2022.
- 沈祥源編著, 《宋元文學史》, 武漢大學出版社, 2009.
- 王新霞·喬雅俊, 《漱玉詞·斷腸詞》, 浙江教育出版社, 2007.
- 張玉娟, 〈產業融合視野下歷史名人文化旅遊優化路徑研究 - 以李清照為例〉, 《傳媒論壇》 第1期, 2018.
- 周禹辰, 〈論中國庭園中的雕刻文化 - 以趙突泉公園為例〉, 《美術教育研究》, 2020.
- Michael Schudson, “The Past in the Present versus the Present in the Past”, *Communication* 11 No. 2, (1990).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Li Qingzhao Memorial Hall in Jinan reconstructs her literary identity and image through its exhibition narrativ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exhibition composition and spatial arrangement.

and related artifacts. In addition, through Song-dynasty-style architecture and landscaped plantings, such as osmanthus, Chinese begonia, pear blossoms, plum blossoms, and Chinese parasol trees, all of which Li Qingzhao was known to have favored during her lifetime—the memorial spatially embodies the poet's life experiences and emotional sensibilities.

The exhibition narrative constructs Li Qingzhao from three interrelated perspectives: as an outstanding ci poet of her age, as an idealized female figure representing Chinese cultural values, and as a writer who retained a deep sense of nostalgia for her hometown, Jinan. The exhibition is composed of both indoor galleries and outdoor exhibition spaces. Indoors, the displays focus on critical evaluations of the poet, the development of her life, and related books and artifacts; outdoors, her literary world is further expanded through stone carvings of ci poetry, poetry-and-painting compositions(詩畫), pavilions, and landscaped elements.

However, the exhibition reveals certain limitations in systematically interpreting and conveying Li Qingzhao's literary achievements an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her work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calls for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exhibition narratives that support literary context and interpretation in museums dedicated to literary figures.

Key Words : 중국 고대 여성작가(ancient Chinese female writers),
 제남 여성작가 기념관(female writers' memorial museums in
 Jinan), 이청조(Li Qingzhao), 전시 내러티브(exhibition
 narrative), 사문학(Ci poetry)

